| 현불논단 |

'반야심경' 읽는 가톨릭 신부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불교평론' 게재된 L신부의 에세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스님에게
'반야심경' 봉독해준 이야기를 담아
"도반 함께 한 추억으로 남아" 감동

근자 타인의 종교 무시 사례들 많아
평생 품어온 스님의 종교 존중하고자
'반야심경' 읽어준 신부는 좋은 선례
진정한 종교인 자세가 무언지 성찰을

불자라면, 누구나 아는 〈불교평론〉이라는 책자가 있다. 학술지와 일반 잡지 중간 정도인데, 불교학에 비중을 두고 있어 내용에 무게감이 있다. 계간지인 이 책은 중간 즈음 수십 페이지를 각계각층의 에세이를 담아내고 있다. 올해 여름에 발행된 〈불교평론〉에 의미 깊은 내용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 바로 L신부가 쓴 '내가 만난 반야심경' 이다.

"2021년, 코로나가 심각하던 무렵이다. 내(L신부)가 머물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한 노스님이 들어왔다. 스님은 암으로 투병하며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인데, 임종 시기가 되어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온 것이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병동을 다니는 중에 간호 수녀님이 '저 병실에 스님이 들어오셨다' 고 귀띔을 해주었다. 내가 그 병동으로 들어가니, 스님께서는 의식이 없이 호흡기를 착용하고 누워 계셨다.

죽음을 준비하는 병약한 노년의 모습 그대로였다. 보호자도 없이 생의 마지막을 호흡기에 의지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스님께 내가 해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학생 때, 반쯤 외웠던 〈반야심경〉이 기억났다. 스님께 해줄 수 있는 것은 〈반야심경〉을 읽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 '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였지만, 평온한 침묵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가 수행자답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며칠 동안 매일 방문해 의식도 없는 스님께 〈반야심경〉을 읽어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병동에 들어가니, 스님이 안 계셨다. 지난밤에 돌아가셔서 보호자가 모시고 갔다는 것이다. '조금만 더 몇 차례 스님께 〈반야심경〉을 읽어드려야 했는데…' 후회스러웠다. 나는 스님의 법명도 모르고 어찌해서 이 병동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스님께서 수행자로서의 모습만이 각인되어 있다. 스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도반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1인칭(L신부)으로 원고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어쩌다 죽음을 앞둔 스님께서 천주교 암병동에 머물렀고, 이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야했는지…. 그 스님의 입적이 미래 곧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스님이 입적하신 뒤에 모시고 간 그 보호자가 누군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솔직히 눈치 채신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평생을 살아온 절집인데, 상좌나 문중의 권속들이 모시고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승려는 병원에서의 죽음이 '평생을 수행자' 로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법적 제재를 받는다. 곧 승려의 속가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보증하지 않으면, 승려들은 죽어서도 장례 치르는 일이 쉽지 않다. 솔직히 필자는 출가한지 강산이 4번이나 변했고, 형제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데 죽어서야 연락할 상황이다.

필자는 감성팔이하려고 이 글을 작성하는 것만은 아니다. 근자에 자기 종교에 빠져 타인의 종교를 무시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 인간의 심각한 오류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무거운데도 L신부의 갸륵함이 따스하게 다가왔다. 병동의 환자가 스님이어서 신부가 '환자의 평생 품어온 인생관과 가치관을 존중' 코자 〈반야심경〉을 읽어주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똑같은 상황이라면, L신부처럼 할 수 있을까? 아마 필자는 '이번 기회에 부처님 제자되어 극락 가십시오' 라며, 환자에게 실컷 법문할지도 모르는 소인배다.

하여튼 L신부에게 좋은 것을 배웠다. 그의 모습이 어찌보면 진정한 종교인의 표상이라는 생각도 든다. 신부님!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三伏과 '조주삼전어'

무더운 삼복이 여름 가운데 놓여있는 절기다. 초복 중복을 지난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더니 말복이 지나도 꺾이질 않는다. 하기야 이런 더위가 없으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봄에 새싹이 태어나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한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장마가 길고 물 폭탄이 쏟아져 햇볕이 더 뜨겁게 내리쬐는지도 모른다.

모든 풀이 꽃을 피우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이다. 세상에 꽃피우지 못할 식물과 열매 맺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으랴. 모두 삼복의 더위를 극복했기 때문이다. 사람도 삼복의 무더위를 이겨내야 한다. 탐욕과 분노와 치정의 삼독(三毒)을 이겨야 한다. 아무리 인간 내면에서 삼독(三毒)이 뜨겁게 들끓어도 진리를 향한 굳건한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진리를 열매 맺을 수 있다.

〈벽암록〉 96장에는 '조주삼전어(趙州三轉語)' 란 법어가 실려 있다. 조주선사가 대중에게 세 가지 전어(轉語)를 말씀하셨다. '전어' 란 사람이 죽어갈 때 선약을 먹여 살려내 듯, 정신적 고통에 빠져 허덕일 때 한 마디 말로 생기를 찾아주는 지혜의 말씀을 일컫는다. 삼복처럼 뜨거운 삼독을 이겨내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림 · 최주현

조주선사는 "쇠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말고(金佛不渡爐), 나무 부처는 불 위로 지나지 말고(木佛不渡火), 진흙 부처는 물 위로 건너지 말라(泥佛不渡水). 참된 부처는 마음속에 있다(眞佛內裡坐)"라고 말씀하셨다. 설두화상은 이 세 마디 말씀에 게송을 붙였다.

진흙 부처가 물에 들어가면 풀어지듯, 물에 빠지지 말라고 한다. 남자는 여자에 빠지고, 여자는 남자에 빠진다. 학문이 높고 지식이 빼어난 사람도 예외 없이 치정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

쇠 부처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듯,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처럼 된다고 한다. 탐욕은 인간을 마구 물어뜯는 사나운 개와 같다. 탐욕을 버려야만 청량한 진리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다. 나무 부처가 불속에 들어가면 타버리듯, 화내지 말라고 한다. 화를 참지 못해 죄를 짓고, 살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마음은 고요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물, 불, 흙이 아닌 무(無). 탐진치(貪瞋癡)의 삼독과 분별심마저 없애라는 설법이다.

삼복(三伏)이란 글자는 더위가 극성을 부리는 초복, 중복, 말복에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으라고 한다. 나도 바싹 엎드려 삼복을 이기리라. 조주선사의 삼전어를 되새기며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삼독을 이겨내리라. 마음속 진여(眞如)가 드러나도록.

〈작가〉

社 說

불교, 싱크탱크 연구소가 시급하다

8월 24일 동국대에서는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예비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9월 5일부터 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대학생 전법 워크숍의 사전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왜 대학생 전법인가' 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 통계를 통해 현재 한국불교의 현 주소를 진단했다.

관련 내용을 접하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진단들이 개신교계의 조사 · 통계를 통해 이뤄졌다는 데 만감이 교차했다. 사실 불교계가 이 같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스님은 총무원 내 불교사회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의 사회 ·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를 2012, 2014, 2015년에 걸쳐 진행했다. 당시 발간됐던 연구 조사서는 불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돼 왔다.

대중과 함께 해야 하는 종교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국민 인식과 여론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개신교 측에서 5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여하면서까지 정기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불교는 최근 대학생 전법을 화두로 세웠다. 그럼에도 불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한 통계 자료는 전무하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종단 전법이 나아갈 방향을 총체적으로 제시해줄 싱크탱크, 종단 종책연구소의 역할이다. 현재 조계종에는 과연 종책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가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종단에는 '실사구시' 적 종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경연 · 공모 통해 젊은 인재 양성을

최근 한국불교계는 청년 · 대학생 포교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함께 확대되는 것이 다양한 경연대회 · 공모전이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9월 1~2일 양일간 제1회 은정전통예술국악경연대회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원에서 개최한다. 경연은 △기악 부문(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피리) △성악 부문(판소리, 경서도 민요, 가야금병창, 정가) △타악 부문(사물놀이, 농악, 무속가락)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경연을 통해 선발된 최종 우승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경연대회 중엔 최고 수준의 상금이기도 하다. 이는 서양 클래식보다 척박한 한국음악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명 출판사인 김영사 김강유 회장이 설립한 (재)여시관은 불교 진흥을 위한 역경 불사와 청소년 · 청년 독후감 공모에 나선다고 한다고 한다.

(재)여시관은 "붓다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번역 소개한 번역자와 출판사를 시상하고 응원하기 위해 '여시관 불교 번역상' 을 제정했다"면서 제1회 불교 번역상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마음 독후감 대회' 도 연다. 이는 (재)여시관이 제시한 7종의 도서 중 1종을 선택해 독후감을 작성해 보내면 심사 ·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젊은 인재가 모이기 위해서는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이를 가장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경연대회와 공모전이다. 불교가 주도하는 품격 높은 경연대회와 공모전은 해당 분야 인재의 양성이자 미래 불자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다. 다양한 경연 · 공모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